

기상정보



27-34℃
파고 1.0-2.5m
파고 1.5-3.5m
파고 1.5-3.5m
26-32℃
파고 1.5-3.5m
27-32℃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27℃, 낮 최고기온은 32-34℃로 예상된다. 오후부터 구름이 많을 예정이니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주	10%
10%	성산	10%
10%	고산	10%
1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리고 비 27/34℃

모레 ☁️ 흐리고 비 27/32℃

월드뉴스

신압록강대교 개통 눈앞... 북측 세관 막바지

‘신의주세관’ 간판 부착

북한 신의주 인근과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측 구간에서 세관 건설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다리 개통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2014년 다리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미개통 상태인 신압록강대교 북측 구간의 세관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건물 외벽에 ‘신의주세관’ 간판이 부착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상업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창고와 물류시설, 세관과 보안시설 등이 들어설 북한 쪽 구역이 전체적인 외형을 갖췄다고 보도했다. 세관 주변에는 교역품 검사장과 관문 형태의 대형 구조물도



신압록강대교. '연합뉴스'

건설되고 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측 무역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다. 2009년 양국이 건설에 합의해 2010년 착공했고, 2014년 중국이 건설비를 부담해 다리 본체를 완공했다. 그러나 북한의 재정난과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개통이 연기됐다. 지난해 1월 공사가 재개됐으며 최근 북측 교류 동향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정식 개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강철흔
제주도치과의사협회장·우리치과 원장

치과를 가기 두려워하는 이유는 통증과 더불어 고가의 치료비 부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만, 치과 치료에서는 아직도 비급여 치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치과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잇몸질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을 매년 1회 본인 부담금 30%(약 1만5000원)로 받을 수 있다. 매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당해 연도의 보험 스

알아두면 좋은 치과 건강 보험

케일링 혜택은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의 보험 스케일링은 치주질환과 구취 예방에 필요하다. 풍치가 발생해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9세 미만 소아와 청소년은 예방용 스케일링은 비급여지만 잇몸이 붓거나 염증이 생겨 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음은 어린이 레진 치료다. 레진 치료는 치아 색과 유사해 심미성이 뛰어나고 강도와 접착력도 좋지만 성인에게는 비급여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는 충치 치료 시 보험 혜택이 적용돼 본인 부담률 30%(치아당 2만~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만 12세에 는 치과에 내원해 충치 유무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치에 시행하는 레진 치료는 보험

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레진 치료 보험 대상이 만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구강 관리는 평생 건강에 반드시 필요하다.

어르신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이 대상이며, 1인당 평생 위아래 구분 없이 2개까지 본인 부담률 30%(개당 약 40만원 전후)로 치료가 가능하다. 현재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2027년부터는 보험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임플란트 식립 시 동반되는 뼈이식은 비급여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만 65세 이상에서는 완전 틀니나 부분 틀니도 본인 부담률 30%(틀니당 약 42만원)로 치료받을 수 있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으로 유지·관리받을 수 있다. 틀니는 오래 사용하면 교체가 필요하며, 재제작 시 원칙적으로 7년 주기마다 새로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어르신 임플란트와 틀니는 시술 전 치과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 등록이 필수다. 치식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으로 등록 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해지 신청은 임플란트 평생 인장 개수에 포함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요양기관 변경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치과 폐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률이 5~20% 수준으로 더 낮아진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2개의 임플란트 식립과 틀니 제작이 가능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다.

열린마당

쓰고 버리던 행사 현수막, 전용 수거함으로 우수율 제고사업을 통한 ‘1%의 향상 효과’



김효진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행사나 회의가 열리는 곳에서는 주요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제 역할을 하지만 행사가 끝나면 며칠 만에 철거돼 버려진다. 특히 실내에서 사용한 현수막은 깨끗하고 훼손도 적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버려진 현수막의 상당수는 다시 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된다. 2025년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7t으로, 이 중 약 60%인 10t이 소각됐다.

서귀포시는 8월 24일부터 시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등에 ‘폐현수막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한다.

훼손·오염이 적은 현수막을 별도로 모아 사회적 기업 ‘희망나래’와 함께 우산, 보냉백, 돗자리 등 생활용 제품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시청 본관과 별관에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양심우산’이 비치돼 있다. 행사를 알리던 현수막이 비 오는 날 필요한 우산으로 새로운 쓰임을 이어가는 것이다.

행사에서 모든 폐현수막이 희망나래의 손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고 다시 지역에서 활용되면서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사회적 가치도 만들 수 있다.

전용 수거함은 버려질 자원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이어주는 순환의 출발점이다. 올해 본청에서 시작해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회수체계와 활용처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행사는 끝나도 현수막의 쓰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 번 쓰고 버리던 현수막에 새로운 쓰임을 더하는 작은 변화가 자원을 다시 쓰는 일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태승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수도꼭지를 틀면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지는 수도물. 하지만 정수장을 떠나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남은 관로 틈으로 얼마나 많은 물이 새어 나가는지 생각해 본 도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 가운데 가정과 사업장에서 요금으로 걷히는 물의 비율을 ‘우수율’이라 부른다. 제주의 우수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 도는 2016년부터 우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투자 실적 저조와 배·급수관 중심 정비로 우수율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

다. 이에 2024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우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는 ‘우수율 향상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우수율 1% 상승 시 연간 273만 톤, 하루 7500t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연간 9억8000만원의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어승생정수장 하루 생산량 1만5000톤의 절반에 해당한다. 우수율을 2% 높이면 새 정수장 하나를 더 짓지 않아도 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우수율 향상은 단순히 요금 원가를 낮추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새지 않아도 될 물을 지키는 것은 곧 지하수를 보전하는 일이며, 지하수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제주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재정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섬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는 일, 그것이 우수율 향상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부고

문익순(前 제주도청 근무) 어머니 제주 양씨 인생(향년 97세)께서 서기 2026년 8월 25일 02시 35분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발인일시: 8월 28일 (금요일) 08:00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제주시 월평동 가족묘지

아들 문익순 며느리 송봉연(본속)

송화 김정숙

홍철 강여숙

발 문신숙 사위 고권정

계숙 김종범

무숙 김종석

손자 문경탁 손부 김현정

수찬 김혜인

현규 김혜인

경규 강유나

손녀 문미혜 손서 변성완

선영 강완택

혜영

증손 문지환 준호 태경 하은 진서 시윤

외손 고승훈 김민준 고경은 김민경 김두희 김지희 김수희

외증손 변예은 변예원 변시우 강은유 강신우

※ 연락처

문익순 010-9778-0542 문신숙 010-2306-3863

문송화 010-8707-8418 문계숙 010-3620-2378

문홍철 010-3698-4125 문무숙 010-7238-3640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모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은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혈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리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